

세계 치과 명화 여행

권훈

미래아동치과의원

ORCID ID

Kweon Hoon,  <https://orcid.org/0000-0002-2830-8643>

ABSTRACT

A World Tour of Dental Paintings

Kweon Hoon

Mirae Children's Dental Clinic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In this short adage, the goal and desire achieved through this article focusing on the history of dentistry through paintings is contained. Past experience, whether direct or indirect, is an invaluable asset for dentists. In essence, the past teaches us vicariously, has historical lessons, and is a compass for the future.

One of the attractions of art is that it helps people empathize.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power of painting. Even without words or explanations, paintings connect people from the past to modern times. Moreover, if you listen to an explanation of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a particular painting, you discover a deeper understanding and connection to the events depicted.

In this study, famous dental paintings in art museums from around the world will be introduced. In addition, the dental paintings will be considered and discussed as evidence of the life and times of famous painters of the past, and as related to dentistry in particular. We conclude the tour as experts of dental history paintings.

Key words : Dental Paintings, History of Dentistry, Art Museum

Corresponding Author
Hoon Kweon DDS, MSD
Mirae Children's Dental Clinic, Gwangju, Korea
Tel : 062-672-2543 / Fax: 062-673-2543 / Email : 2540go@naver.com

I. 서론

‘One picture is worth ten thousands words.’ 이 짧은 격언 안에는 그림을 통해 치의학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이 글을 통해 성취한 목표와 바람이 담겨있다. 치과의사에게 직접이든 간접이든 과거의 경험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경험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을 수 있고, 역사적 교훈을 가지는 과거는 미래를 향한 나침반 이기에 그림을 통해 치의학 역사를 알아보고자 한다.

예술의 매력 중 하나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그림의 힘이다. 말이나 설명이 없어도 그림은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연결한다. 또한 특정 그림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 치의학 역사적 배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연관성을 발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치과 명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과거의 유명 화가들이 남긴 치과와 관련된 그림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는 세계 각국의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치과 명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필자는 미술관 도슨트(docent)로 변신하여 과거 유명 화가들의 삶과 시대를 보여주는 증거로, 특히 치과와 관련된 내용이 논의될 것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지금까지 방문한 치과 박물관을 소개하고 방문하면서 연구자가 고찰한 내용을 기술한 자전적 내러티브 기술 방법(autobiographical narrative inquiry)을 택하여, 세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치과명화를 통해서 치과의사학의 가치를 제시하고자 했다.

III. 연구성적 및 총괄

연구 방법상 관찰과 고찰이 분리되지 않으므로, “총괄 및 고안” 절에 여러 나라의 미술관 방문과 연구자의 성찰을 모두 기록하였다.

미국 U.S.A.

시카고 미술관(The Art Institute of Chicago)

Grant Wood(1891-1942) : American Gothic(1930)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과 더불어 미국의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시카고 미술관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예술 박물관으로 꼽히고 있다. 시카고 미술관의 1층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그림과 조형품이 전시되어 있고, 2층에는 18-19세기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이, 3층에는 근, 현대 작가들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

치과의사가관심을가지고봐야할GrantWood(1891-1942)의 작품 ‘American Gothic’은 바로 미술관 2층에 전시되어 있다(그림 1)¹⁾. 그림에서 삼지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치과의사 Henry Mckeeby(1867-1959)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로 필자에게는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진다. 동네 치과의사 매키비(Mckeeby)는 미국 아이와(Iowa)주에서 개원 중이었는데 그의 환자인 화가 우드(Wood)가 그림 모델을 제안하여 참가하였다고 한다²⁾. 모델로 참여할 때 이 작품이 이렇게 까지 유명해질지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다.

우드는 아이오와(Iowa) 주 남부의 작은 마을 엘돈(Eldon)에 있는 고딕 첨탑이 달린 하얀 집을 우연히 발견하였고 자신의 여동생 낸(Nan Wood Graham)과 자신의 주치의 치과의사 매키비를 모델로 하여 하얀 집 앞에 서게 한 후 American Gothic이라는 명작을 남겼다. 그림 속의 두 남녀를 흔히 부부로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작가 우드는 시골 농부와 그의 딸로

설정하고 있다. 건초용 갈퀴를 들고 있는 남자는 자신의 일과 땅을 지키려는 의지가 단호해 보이고 안경 너머로 정면을 응시하는 눈과 꼭 다문 입술에서는 고집스러움이 묻어 나온다. 반면 옆을 바라보는 여자의 시선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의 열망이 강함을 읽을 수 있다.

아이오와주 작은 마을의 생활모습을 담은 정겨운 초상화인 이 그림은 미국 회화사상 가장 많이 패러디가 되고 있다. 또한 조형예술가 J. Seward Johnson Jr는 아메리칸 고딕 작품을 'God Bless America'라는 7.8미터 크기의 커다란 조형물로 제작하였고, 이 조형물은 시카고 파이오니어 광장에 전시되어 있다. 그림과 조형물의 차이점은 여행용 가방인데 가방에 붙은 스티커에는 여러 나라와 도시들이 적혀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 도시들이라고 지목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 God Bless America의 작가 슈워드 존슨 주니어는 치실을 처음으로 제작하여 판매한 존슨앤존슨 창업주의 손자이고 조형물의 주인공은 치과 의사 매키비라는 점은 기가막힌 우연의 일치라 할 수 있다.

영국 U.K.

영국치과 의사협회 치과박물관(British Dental Association Dental Museum)

Sir John Lavery(1856-1941) : The Dentist(1929)

Sir John Lavery(1856-1941)의 작품 'The Dentist(1929)'이다(그림 2). 자화상 화가로 유명한 존 래버리 경이 자신의 부인이 치과 의사 콘래드 아크너(Conrad Ackner)의 진료실에서 치료받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그림에서 20세기 초에 사용된 방사선 기계와 치과 의사가 착용하고 있는 헤드랩프가 인상적이다. 2011년 영국치과 의사협회는 'The Dentist(1929)'를 60,000파운드에 구입하였고 현재는 영국치과 의사

협회 치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³⁾.

그림3의 모델인 치과 의사 콘래드 아크너는 1912년 영국에서 치과 의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1913년 영국의 의사 면허관리기구인 'GMC(General Medical Council)'에 등록을 하였다^{4,5)}. 치과 의사 콘래드에게는 작가 존 골즈워디(John Galsworthy, 1867-1933)와 노르웨이 국왕 등 소위 말하는 VIP 환자들이 꽤 많이 있었다. 자신이 모델로 그려진 존 래버리의 작품 'The Dentist(1929)'가 그 당시 꽤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기에, 콘래드는 그림의 카피 품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작하여 달력과 함께 환자들에게 선물하였다. 그러나 GMC는 이러한 콘래드의 행위를 광고로 간주하였고 그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현재의 잣대로 콘래드의 치과 광고를 쟀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엄격한 법 집행인지 아니면 강력한 단체(GMC)의 힘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정의롭고 권위가 있는 영국의 GMC와 같은 단체가 하루빨리 생긴다면 치과 의사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광고는 바로 소멸될 것으로 생각된다.

프랑스 France

1. 오르세 미술관(Musee d'Orsay)

Honore Daumier(1808-1879) : La bons bourgeois(1847)

Edouard Vuillard(1868-1940) : Portrait of Dr. George Viau(1914)

: Portrait of Doctor Louis Viau in his office(1934)

오르세 미술관 1층 사실주의 대표적인 화가 밀레 전 시실 바로 옆 공간에 사람 인형들이 진열되어 있다⁶⁾. 인형들은 풍자만화에 나오는 프랑스 정치인들인데, 인형 제작자인 오노레 도미에(Honore Daumier, 1808-1879)는 화가이자 정치 풍자 만화가이다. 밀레의 '이삭줍기'는 농촌 여성들의 고단한 삶을 표현하였다면 도



그림 1. Grant Wood(1891-1942)의 작품 American Gothic(1930)



그림 2. Sir John Lavery(1856-1941)의 작품 The Dentist(1929)



그림 3. Edouard Vuillard(1868-1940)의 Portrait of Doctor Louis Viau in his office(1934)

미에의 '세탁부'는 도시 여성 빈민의 고단한 삶이다. 빨랫터에서 빨래한 후 가파른 계단을 아이와 함께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도미에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화가는 아니지만 유명 화가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피카소는 도미에를 19세기 예술의 미켈란 젤로라는 찬사를 보냈고, 밀레는 도미에의 명암 기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고흐는 자신의 편지에서 도미에를 50번 넘게 언급하였고, 드가는 도미에의 판화를 750점이나 소유하였다. 미술사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떠난 도미에는 사회를 풍자하는데도 앞장섰는데 그의 작품들 중에 치과를 묘사한 것들도 꽤 많다⁷⁾.

형태는 단순화하고 혼합된 색상으로 선호하는 나비파의 대표적인 화가 에두아르 뷔야르(Edouard Vuillard, 1868-1940) 작품 중에서 치과를 배경으로 하는 초상화 2점이 오르세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⁸⁾. 그는 특히 초상화에서 절제된 공간미와 빛의 유희가 펼쳐지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작업을 하였다. 첫 번째 그림은

뷔야르의 1914년 작품 'Portrait of Dr. George Viau'이고 주인공은 치과의사 George Viau(1855-1939)이다.

Viau는 치과의사면서 미술품 수집가였고 또한 많은 화가들을 후원도 하였다. 그 화가들의 면면을 보면 세잔(Cezanne), 모네(Monet), 르느와르(Renoir), 투루즈 로트렉(Toulouse Lautrec) 등이 있다. 에두아르 뷔야르도 그 중 한명이었고 어쩌면 치과의사 Viau의 환자였을지도 모른다. Viau는 파리 치과학교(School of Paris Dentiare)를 설립하였고 이 학교 박물관에 상당한 금액도 기부하였다. 뷔야르의 1937년 그림 'Portrait of Doctor Louis Viau in his office'에서는 그 당시 Viau의 치과 진료실 풍경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그림 3).

2. 앙드레말로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André Malraux-MuMa) Edgar De Gas(1834-1917), Laundry women with toothache(1870)

: *Laundrywoman with an aching tooth*(1872)

: *Miss La La at the cirque Ferando*(1879)

파리에서 서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노르망디 지방의 작은 항구 마을 르 아브르(Le Havre)는 인상파의 성지다. 바로 이곳에 파리 오르세 미술관 다음으로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인 앙드레 말로 현대 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Andre Malraux)에 치통이 생생하게 표현된 드가의 그림 '치통을 앓는 세탁부(1870-2)'이 있다(그림 4)⁹⁾.

수십 명의 인상파 화가들이 남긴 작품들 중에서 아마도 유일하게 치과와 관련된 그림이지 싶다. 19세기 치통은 누구나 겪었을 흔한 증상이었고 치과 치료는 더 힘들게 받았던 시절이었다. 드가의 작품에는 거의 여성만 등장하는데 주로 발레리나, 가수, 배우, 귀부인 등이었다. 드가는 치통을 묘사하기 위해서 많은 직업군 중에서 왜 '세탁부'를 선택하였을까? 19세기에 힘들지 않은 직업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그중에서 세탁부는 아마도 탑3에 포함될 정도로 극한 직업이었다. 게다가 빨래는 주로 여성이 담당하였으니까 힘들은 더욱 배가되었을 것이다.

19세기에도 치통이 심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응급치료는 붕대를 턱에 단단하게 동여 메는 것이었다. 치통이 있는 뺨에 약을 바르고서 말이다. 말이 안 되는 치료지만 그뻘 저것이 최선이었다. 세탁만으로도 일상이 힘든데 젊은 아가씨에게 치통이라는 큰 짐까지 얹혀졌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는 'toothache scarf'였다¹⁰⁾. 그림에는 작가의 생각과 인생이 담겨있다고 한다. 따라서 드가도 치통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추정만 가능하고 입증할 자료는 없다. 마지막으로 괴로워하는 여성 세탁부가 표현된 그림에는 또 다른 고통이 담긴 스토리가 있다. 드가의 이 작품은 1961년 앙드레 말로 미술관

의 소유가 되었으나, 불행하게도 1973년 도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그림은 37년 만에 경매 시장에 나타났다가 압수 조치를 받아 다시 현재의 자리로 돌아왔다.

서커스를 좋아했던 에드가 드가는 이를 악 문채 서커스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Miss La La at the cirque Ferando*(1879) 그림으로 남겼다. 작품의 주인공은 실존 인물 라라다. 하나의 밧줄에 메달린 라라의 모습이 그림만 보아도 아찔해 보인다. 현재 이 작품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다. 에드가 드가는 라라양의 서커스 연기에 사로잡혀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그녀의 위태로움과 불안감을 강조한 것 같다. 그러나 필자는 이 작품을 보면서 라라의 치아는 어떤 상태일지가 더 궁금하였다. 또한 단순히 밧줄만 치아로 물고 있을까?

세계 최초의 치과대학인 메릴랜드 치과대학에 가면 Dr. Samuel D. Harris National Museum of Dentistry 입구에 들어서면 에드가 드가의 작품과 비슷한 마네킹 모델이 전시되어 있다. 남자가 공중 그네를 타면서 줄에 메달린 소녀를 오로지 치아로만 꼭 문채로 곡예를 하는 장면이다. 이러한 공연을 Iron-jaw 또는 dental trapeze라고 한다.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아와 악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다. 박물관 전시실안에 1950년대 iron-jaw 공연으로 유명한 12세 소녀 Penny Wilson이 실제 사용했던 마우스피스가 진열되어 있다. 곡예사의 상 하악 치열이 재현되어 제작된 경화 고무 마우스피스, 가죽 끈 그리고 금속 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3. 콩데 미술관(Musée Condé)

파리 북쪽 샤를 드골 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샹티성(Chateau de Chantilly)안에 루브르 박물관 다음의 규모를 자랑하는 콩데 박물관이 있다. 샹티성의 마지막 소유자 오말공작(Duke of Aumale) 앙리 오를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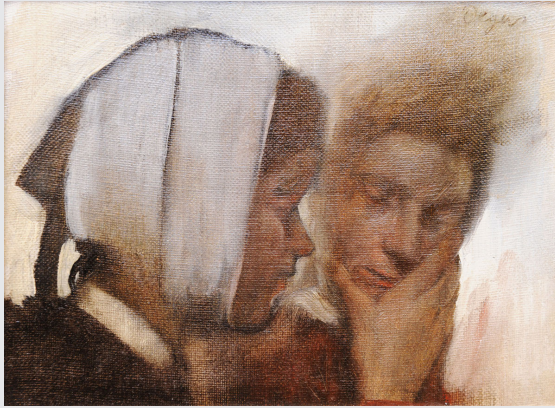


그림 4. Edgar De Gas(1834-1917)의 Laundry women with toothache(1870-2)



그림 5. Martyrdom of Saint Apollonia

앙(Henri d'Orleans)이 1886년 샹티 성, 공원과 그의 소장품을 국가에 기증함으로써 콩데 미술관이 탄생하였다. 샹티성은 또 다른 히트 상품을 탄생시켰다. 케이크와 커피에 사용되는 생크림(크림 10대 설탕 1의 비율로 휘핑해서 만듦)을 크림 샹티(Crème Chantilly)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샹티성에서 근무하는 요리사 바텔이 최초로 만들어서 샹티성의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미술관의 상투아리오(Santuario)에 라파엘로의 그림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 장푸케(Jean Fouquet, 1415-1480)의 작은 그림(A4 사이즈 반)들 중에서 치과의사 성녀 아폴로니아의 순교 장면이 있다(그림 5). 로마 황제 데키우스의 명을 받은 사형 집행인이 아폴로니아를 꽁꽁 묶고 머리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치아를 부러뜨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아폴로니아 순교 그림은 장푸케가 1452년경에 템페라(안료와 매체가 혼합된 그림 물감의 일종)로 그린 Hours of Etienne Chevalier인데 원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18세기에 찢겨져 곳곳으로 흩어졌다. 그중 일

부인 40장을 오말 공작이 1891년 독일 은행가 브렌타노(Brentano)의 아들에게서 이십 오만 프랑에 구입한 채식본(illuminated books)이 콩데미술관에 전시 중이다.

이탈리아 Italy

1. 우피치 미술관(Galleria Uffizi)

Jan Miense Molenaer(1605-1668) : The Charlatan

Bartolomeo Pinelli(1781~1835) : The Charlatan in Rome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르네상스 회화를 소장한 곳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작품들이 모두 메디치 가문의 소유였고 메디치가의 마지막 후손이 가문의 재산을 국가에 양도하였다. 그 덕분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약 5만원의 입장료만 내면 마음껏 보티첼리,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이 미술관의 소장품은 약 2,500여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 치

과와 관련된 그림이 2점 있다¹¹⁾. 물론 이 작품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지 않지만 17세기와 19세기의 치과 진료 모습을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이다.

서민의 생활 모습을 잘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네델란드의 화가 얀 민스 몰레나르(Jan Miense Molenaer, 1605-1668)의 그림 'The Charlatan'이다. 발치사는 노인의 치아를 발치하고 있는데 왼손으로는 환자의 머리를 고정시키고 있다. 발치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양한데, 그중에 한명이 환자의 지갑을 훔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다른 회화에서도 표현되었다. 이밖에도 몰레나르의 치과와 관련된 작품으로는 'The Charlatan Dentist', North Carolina Museum of Art가 소장하고 있는 'The Dentist(1629)', 런던에 있는 Guy's and St. Thomas' 병원의 Gordon Museum에는 'Tooth extraction'이 있다.

우피치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두 번째 그림은 이탈리아 판화가인 바르톨로메오 피넬리(Bartolomeo Pinelli, 1781~1835)의 작품 'The charlatan in Rome'이다. 이 그림은 19세기 로마의 어느 장터에서 펜치(pincer)와 치아를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떠돌이 의사와 장터에 나온 사람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림 하단에 써진 문구대로라면 모든 것이 치료된다고 한다.

2. 팔라티나 미술관(Palatine Gallery)

Caravaggio(1571-1610) : Tooth Puller(1609)

팔라티나 미술관은 피티 궁전 안에 있다. 피렌체 은행가인 루카 피티(Luca Pitti, 1398-1472)가 메디치가문과의 경쟁을 위하여 1458년 피티 궁전을 건립하였으나, 1549년 메디치가는 피티 가문으로부터 모든 건물을 매입하였고 그곳에 메디치 가문의 수집품들을 전시하였다. 특히 피티 미술관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라파엘로(Raphael)의

작품이 12점이나 전시되어 있어 11점을 보유하고 있는 우피치 미술관과 동급이라 할 수 있다.

2016년에 개봉한 인페르노는 피렌체의 명소들을 잘 보여준다. 톰 행크스가 베키오 궁, 우피치 미술관, 피티 궁전을 잇는 비사리 회랑, 피티 궁전내의 보볼리 정원을 통해 탈출하는 장면이 나온다. 피렌체에 가면 꼭 가 봐야 할 곳 들이다. 그 중에서도 피티 궁전에 있는 팔라티나 미술관(Palatine Gallery)에 바로크 미술의 거장인 카라바조(Caravaggio, 1571-1610)의 명화 'Tooth Puller(1609)'가 있다(그림 6).

이 작품은 극적인 명암대비와 어두운 색조를 사용하여 마치 그림 속 인물들이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보인다⁸⁾. 이처럼 카라바조의 새로운 시도는 미술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 카라바조는 루벤스가 존경하고 렘브란트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사후 300여년이 흐른 후에야 새롭게 평가를 받으며 거장의 반열에 오른 화가이다. 그림은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그림을 본다. 그래서인지 그림보다는 화가의 인생을 먼저 알고 싶어진다. 화가의 스토리를 알게 되면 그 화가의 그림에 대한 이해도 더 잘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 알게 된 화가들의 인생극장은 치과의사로서의 인생에서도 참고할만하다.

카라바조 그림은 말 그대로 발치사가 발치하고 있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¹²⁾. 테이블에는 약병과 주전자가 놓여있으며 주변에서 6명이 치료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다. 유독 눈길이 가는 두 사람이 있다. 그림의 좌측에 머리를 삭발한 것처럼 보이는 성인 남자와 꼬마 아이이다.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아시아 사람으로 보인다. 아마도 중국 사람일 것이다. 13세기에 마르코 폴로가 중국으로 여행을 갔듯이 중국 사람도 무역을 위해서 이탈리아를 방문했거나 아니면 이탈리아에 정착한 중국인으로 추측된다.

테이블에는 그 당시 사용되던 치과 도구, 약병과 주전자가 놓여있고, 그림에서 환자의 비명소리가 드릴



그림 6. Caravaggio(1571~1610)의 Tooth Puller(1609)



그림 7. Pietro Longhi(1702~1785)의 The tooth Puller(1750)

정도로 잘 표현되어 있다. 17세기 초 카라바조 그림이 완성된 후 200여년이 흐른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치과에서 국소마취제(Cocaine)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비로써야 20세기에 Novocaine이라는 국소마취제가 대중화 되었다.

3. 브레라 미술관(Pinacoteca di Brera)

Giuseppe Crespi(1665~1747) : A fair with tooth Puller

Giovanni Busi(1490~1547) : Cariani, Virgin Enthroned with Angels and Saints

Pietro Longhi(1702~1785) : The tooth Puller(1750)

브레라 미술관은 브레라 미술학교 안에 있는 회화관으로 1809년에 설립되었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피나코테카(Pinacoteca)'라고 더 많이 부른다. 미술관 입구에 '단순히 그림을 전시하는 미술관이 아닌 관람객과 서로 소통하는 미술관'이라는 설명이 적혀있다. 이 미술관에는 3개의 치과와 관련된 그림이 있다. 2개는

전시되어 있고 1개는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미술관에 전시는 되어있지 않고 보관된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Giuseppe Crespi(1665-1747)의 작품 'A fair with tooth Puller'이다. 그림 제목이 말해주듯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치사의 모습이다. 발치사 앞에서 3명이 구경하고 있고 한 남자는 떠돌이 발치사가 왔음을 알리고 있는 듯하다.

입장권을 구입한 후 미술관에 들어서면 14번방이 관람객을 처음으로 맞아준다. 이 전시실에 이탈리아 화가 Giovanni Busi(1490-1547)의 작품 '카리아니의 옥좌에 앉은 성모와 천사와 성인들(Cariani, Virgin Enthroned with Angels and Saints)'이 있다. 그림의 크기는 3미터에 육박할 정도로 웅장한데 그림의 가장 왼편에 성녀 아폴로니아가 상체만 보인채로 서있다. 이 그림에서는 아폴로니아임을 상징하는 치아를 잡고 있는 포셉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왼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셉 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미술관의 35번 전시실에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의

풍속화가 피에트로 롱기(Pietro Longhi 1702~1785)의 1750년 작품 'The tooth Puller'가 있다(그림 7). 롱기는 귀족들의 민낯을 거울처럼 비추는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화가였다. 또한 그는 현대 사회, 습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그의 예리한 관찰을 드러내는 장르화를 통하여 그 당시 베니스에서의 일상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4. 아카데미아 미술관(Galleria dell'Accademia di Venezia)

Pietro Longhi(1702~1785) : The Apothecary(1752)

아카데미아 미술관에는 피에트로 롱기(Pietro Longhi, 1702~1785)의 1752년 작품 'The Apothecary(약제상)'이 있다. 제목에서처럼 그림의 공간은 약제사가 근무하는 실내 공간이다. 18세기에는 약제상이 약물을 이용하여 치과 치료를 담당하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그림이다. 약제사는 기구를 이용하여 젊은 여성의 입안을 검진하고 있고, 여성 환자는 벽에 걸린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 그림을 보고 있는 듯하다. 책상에 앉아 있는 조수는 약제사가 처방한 약을 열심히 적고 있으며, 그림의 왼쪽에 앉아 있는 또 다른 젊은 조수는 불을 지펴 물을 끓이는 중이다. 그림 아래에 적힌 문구에 의하면 젊은 여성 환자는 오페라 가수이며 말하거나 노래할 때 불편감이 있어 약제상을 방문하였다고 한다¹³⁾.

'천년 그림 속 의학이야기'에서는 그림의 젊은 여성 환자가 고급 매춘부이고 입속 궤양을 치료하기 위해 약제상을 방문한 것이라고 한다¹⁴⁾. 'Dentisti Artisti Pazienti(1929)'는 이 젊은 여성을 'Vezzosa giovenetta'라고 서술하고 있다¹⁵⁾. 그 뜻은 '몸을 파는 여성'이라는 이탈리아 속어이다. 좀 더 좋게 번역하면 매력적인 젊은 여성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비유적 표현으로는 유혹하는 젊은 여성 혹은 매춘 여성이다. 여성의

불편한 증상을 듣고 만들어진 약제상의 처방전은 이 시기에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네델란드 Netherland

1.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Rijksmuseum Amsterdam)

Jan Lingelbach(1622~1674): Italian Marketplace with a Quack Dentist(1651)

Lucas de Leyde(1489~1533): The Dentist(1523)

Adriaen van Ostade(1610~1685): The Tooth Puller

Jan Havicksz Steen(1625~1679): The Quack

Jan Victors(1620~1676): The Dentist(1654)

Pieter Jansz Quast(1606~1647): The Dentist(1643)

Balthasar van den Bossche(1681~1715): Dentistry at a market

Rijksmuseum Amsterdam은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립미술관이다. Rijks는 '레이크스' 정도로 발음을 하고 영어로 하면 Royal '왕립'에 해당된다. 그래서 Rijksmuseum Amsterdam은 암스테르담 왕립미술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레이크스 뮤지엄에는 램브란트, 베르메르, 얀스텐, 프란스 할스 등 미술 애호가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작품들이 많다. 파리의 루브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아 다리가 아플 정도로 미술관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이 미술관의 소장품의 숫자가 적지도 않다. 유명화가 작품 5000점과 조각품 3,000점을 포함한 수집품이 약 17,000점이고 아시아 예술 작품도 3,000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이러한 유명 작가들의 명화는 보너스 개념이고 치과와 관련된 그림에만오로지 관심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암스테르담 왕립미술관에 전시 중인 치과 명화는 딱 한 점이다. 독일 화가 Jan Lingelbach(1622-1674)의 작품 'Italian Marketplace



그림 8. Jan Lingelbach(1622-1674)의 Italian Marketplace with a Quack Dentist(1651)



그림 9. 그림 46의 치과 치료 장면을 확대한 모습

with a Quack Dentist(1651)'는 Room 2.17에 가면 직접 볼 수 있다(그림 8). 백마에 앉은 발치사가 서있는 환자의 하악 치아를 발거하고 있다. 환자는 손을 꼭 쥐고 있고 오른쪽 다리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척 고통스럽게 보인다. 이러한 장르화에서는 항상 구경꾼들이 진료하는 모습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레이크스 뮤지엄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결과 치과 진료하는 모습이 그려진 접시도 있다. 1580년경에 그려진 접시에는 여인이 시청 광장에 앉아서 발치사의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문헌에 의하면 레이크스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치과 관련 그림들은 아래와 같다¹⁶⁾. 혹시 나중에 필자처럼 치과 명화에 관심을 갖는 독자를 위해서 6개의 그림을 모두 싣고, 몇 가지 그림에 대해서만 짧게 언급하고자 한다.

1. Lucas de Leyden(1489-1533) : The Dentist(1523)
2. Adriaen van Ostade(1610-1685) : The tooth puller
3. Jan Steen(1626-1679) : The Charlatan(1653)

4. Jan Victors(1619-1679) : The Dentist(1654)
5. Pieter Quast(1605-1647) : The dentist(1643)
6. Balthasar ven den Bossche(1681-1715) : Dentist at a market

16세기 네델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판화가였던 루카스 반 라이덴이 1523년 제작한 동판화에 치과의사가 최초로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⁷⁾. 그는 주로 종교를 주제로 하는 작품을 그렸으나 일상생활의 모습도 많이 그렸다. The Dentist(1523)가 그 중의 하나이다. 환자와 치과의사의 의상이 매우 대조적이다. 환자는 허름하고 낡은 옷을 입고 있는 반면에 치과의사는 우아한 정복을 갖춰 입고 있다. 그림에서 여성의 행동이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다. 보이는 대로라면 여성은 환자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훔치고 있다. 루카스 반 라이덴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없기에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17세기 네델란드 풍속화가 안 스테인은 치과와 관련된 작품을 6점이나 그렸다. 그중에서 The Charlatan(1653)은 사람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다. 검은 옷과

모자를 쓴 떠돌이 의사가 집계에 들고 있는 것에 논쟁이 있다⁸⁾. 어떤 사람은 발치한 치아다. 또 다른 사람은 환자의 목에서 제거된 종양 덩어리다. 의자에 앉아 있는 환자의 모습을 보니 어찌면 환자는 발치도 하고, 목에 있는 종양도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떠돌이 의사는 모든 과를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었다.

17세기 네델란드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Jan Victors(1619-1679)는 주로 종교와 역사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화가이면서도 여러 점의 장르(genre)화도 그렸다. 그는 특히 실외에서 행해지는 치과 치료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였고 4점의 치과 그림을 남겼다. 그중에 3점의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환자의 발밑에 항상 계란 바구니가 놓여 있다. 그 당시 치과 치료비를 계란과 가금류로 지불했다는 문헌이 있다⁸⁾.

2. 마우리츠호이스 미술관(Mauritshuis)

Jan Steen(1626-1679) : The Tooth Puller(1653)

네델란드 사람들은 덴 하그(Den Haag)를 '덴 하흐'라고 발음한다. 우리에게는 영어식 표현 헤이그(Hague)가 익숙하다. 특히 역사 수업 시간에 '헤이그 특사'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헤이그를 포함시킨 이유는 이준 열사 기념관,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Jan Steen의 치과 명화 때문이었다. 이준 열사 기념관까지 소화할 수 있었다.

기념관 입장료를 지불하고 둘러볼려고 하는데 그곳에 근무하시는 어르신께서 입장하기 전에 이준 열사의 생사관을 먼저 읽은 후 구경하라고 한다. '삶을 바르게 힘쓰라'는 문구가 목직함 울림을 준다. 이준, 이상설, 이위중, 세분에게 짧은 묵념을 마음속으로 한 후 알차게 구성된 기념관을 관람하였다. 유럽에 사는 한인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흐뭇하였다. 애국은 큰 것이 아니다. 유럽여행 중 헤이그에 있는 이곳

을 방문만 해도 애국일 것이다. 애국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라는 절로 강하고 위대해지리라 믿는다.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작품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1665년경)'는 생각보다 그림 크기가 작았다(가로 44, 세로 39cm). 이 그림에 대한 미술사적 해석은 수없이 많다. 치과의사 필자의 눈에 비친 이 그림에서 가장 주목이 가는 부분은 상악 전치부다. 빨강 입술 속에 살짝 노출된 하얀 치아는 자연치이다. 그림이 그려진 17세기에 도자기 치아는 아직 개발전이기 때문에 소녀의 치아는 자연치로 보인다. 명화들 중에서 치아가 노출된 작품을 보기가 쉽지 않아서인지 이 그림에 애정이 간다.

헤이그를 방문한 가장 주된 이유는 마우리츠 호이스 미술관에 있는 Jan Steen(1626-1679)의 그림 'The tooth puller'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다. 미술관 홈페이지에 의하면 inventory No. 165번으로 분명 마우리츠호이스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스텐의 그림을 찾으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았다. 미술관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 그림은 이곳에 없고 빌렘 5세(Willem V)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다행히 빌렘 미술관은 마우리츠호이스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결국 안스텐의 그림을 직접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림의 크기가 Malvin Ring의 치과의사화 책보다 약간 클 정도로 작다. 그렇지만 안스텐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인물들을 모두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림의 내용은 풍부하다¹⁷⁾.

떠돌이 발치사는 포도주 통 위에 놓여진 테이블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올려 놓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테이블위에 있는 종이에는 'Carolus Comes 1651'라고 적혀있다¹⁷⁾. 아마도 발치사의 수료증으로 보인다. 17세기에도 허용된 사람만이 치아를 치료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증거 자료이다. 자세히 보니 젊은 환자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의자에 묶인 채 하악 치아가 발거

되고 있다. 발치 기구는 영성해 보이거나 발치할 때 술자의 위치는 지금의 모습과 동일하다.

3. 보이만스 반 쇠닝겐 미술관(Museum Boijmans van Beuningen)

Andries Both(1612-1641) : The tooth puller(1634)

보이만스 반 쇠닝겐 미술관(Museum Boijmans Van Beuningen) 탄생의 배경에는 두 사람의 기증이 있다. 1849년 변호사 보이만스(Boijmans)가 로테르담 시에 기증한 작품들과 1958년 반 쇠닝겐(Van Beuningen)이 기증한 소장품들이 지금의 시립 로테르담 미술관의 기반이 되었다. 처음에는 미술관 이름이 길고 어렵게 보여서 투덜거렸는데, 또 한 명이 기증을 하면 이름은 좀 더 길어 질 것이다. 이런 미술관과 같은 사례가 대한민국에서도 있었으면 한다.

이 미술관이 소장품 면면을 살펴보면 입이 절로 벌어진다. 렘브란트, 피터르 브뤼헬, 달리, 칸딘스키, 몽크, 고흐, 모네, 마그리트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여정에서는 로테르담에 있는 'Pro Rotterdam' 치과 방문 일정이 있어 오전에 1시간 남짓 정도만 미술관을 둘러볼 수 있었다. 번갯불에 콩 볶듯이 미술 감상을 하였지만 나름 울림이 있었다. 다음 기회에 이곳을 꼭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다.

보이만스 반 쇠닝겐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치과 그림은 한 점이다. 네델란드 위트레흐트 출신 화가 Andries Both(1612-1641)의 작품 'The tooth puller(1634)'이다. 먼저 그림을 언급하기 전에 화가의 인생이 참 짧았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그러나 화가의 인생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치과 그림은 무려 5점이나 된다⁸⁾. Outdoor teeth splitter(1632, 레이던 미술관), The tooth puller, The dentist, A tooth-drawer operating on a man, with a woman and a child looking on(Wellcome collection). 그의 그

림을 통해서 17세기 네델란드에서 행해진 치과 치료 장면을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다. 안드리스의 동생 Jan Both(1615-1652)도 화가였다. 동생도 역시 37세의 인생으로 무척 짧았다. 그 역시 형의 그림과 동일한 제목으로 치과 그림을 한 점 남겼다. 그들의 인생은 짧았지만, 그들의 예술작품은 영원할 것이다.

4. 벨기에 왕립미술관(Royal Museums of Fine Arts of Belgium)

작자미상: The Meir square in Antwerp

Balthazar van den Bossche(1681-1715):

L'Aracheur de dents sur la Grand,

Jacques Callot(1592-1635): The fair at Impruneta(1620)

Caspar de Crayer(1584-1669): Sainte Apolline

Jacob Jordaens(1593-1678): The martyrdom of Saint Apolline(1628)

미술을 공부하다 보니 책에서 플랑드르(Flandre) 화파 또는 Flemish artist란 단어를 자주 볼 수 있다. 플랑드르는 12-3세기에 사용되었던 지명이고 현재의 벨기에를 주로 말한다¹⁸⁾. 벨기에 브뤼셀에도 가볼만한 미술관이 있다. 특히 미술관 입구에 한글로 쓰인 '벨기에 왕립미술관' 간판은 한국인에게 충분히 호감을 일으킬 만하다. 물론 다른 몇 개 나라 언어로도 써져있지만 자기 나라 글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에 작은 배려가 큰 기쁨을 가져다준다.

벨기에가 프랑스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을 때, 벨기에 교회들이 소유한 모든 재산들이 몰수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미술품들이 파리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현재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그중에 일부가 벨기에로 반환되어 벨기에 왕립미술관이 설립되었다. 이 미술관은 샤를 궁전터에 세워졌고 4층 건물의 미술관에 플랑드르 화파 그림을 포함하여 유럽 유명 화가들

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벨기에 왕립미술관에는 치과 그림이 무려 5점 있다. 이중에서 2점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발견한 소중한 자료이다.

첫 번째 그림은 작자미상의 작품 'The Meir square in Antwerp'이다⁸⁾. 안트베르펜의 메이르(meir) 광장을 사진처럼 묘사하고 있다. 장날이라 그런지 그림에 나온 사람의 숫자를 셀 수 없도로 많다. 그림의 앞부분에는 가금류와 계란을 사고파는 모습이 보이고, 그림의 가장 왼쪽에서는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사도 보인다. 그림의 오른쪽에는 치과치료를 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환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기다란 기구를 환자의 입에 갖다 대고 있다. 테이블에는 금속으로 제작된 통과 기구가 가지런하게 놓여있다. 이 그림에서도 Theodor Rombouts (1579-1637)의 'The tooth puller'에서 보았던 것처럼 치료하는 사람의 모자에 깃털이 달려있어 뭔가 전문가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그림은 작자 미상이라 그림의 제작 시기 또한 알 수 없다.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의 의상을 통해 대략적인 제작 시기라도 파악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두 번째 그림은 발타자드 반 덴 보쉬(Balthazar van den Bossche, 1681-1715)의 작품 'The Tug of teeth on the Grand Place in Brussels(1710년)이다⁸⁾. 발타자르 반 덴 보쉬가 18세기 치과 치료를 하는 무대를 표현하고 있다. 무대의 중앙에서 뭔가를 자랑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치아를 들고 있다. 발치사의 왼쪽에 커튼을 제치고 있는 할리퀸(Harlequin)도 보인다. 진료를 보조하면서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장소는 브뤼셀의 중심지인 그랑플라스(Grand Place)이다. 그림 전체적인 분위기가 고풍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장소 때문인 것 같다. 빅토르 위고는 그랑플라스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감탄하였고, 1998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3세기부터 시장이 형성되면서 점점 발달하여 지금의 광장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한다.

세 번째 그림은 프랑스 판화가 자크 칼로(Jacques Callot, 1592-1635)의 작품 'The Fair at Impruneta(1620)'이다. 이 그림은 어느 문헌에서도 치과와 연관된 작품이라고 소개되지 않았다. 이번 여행에서 우연히 필자의 눈에 들어온 작품이다. 사실 장터가 묘사된 그림에서 치과 치료가 행해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가 필자로 하여금 특히 16-17세기 장터 그림에 유독 관찰력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자크 칼로의 작품을 발견하게 되었다.

17세기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Impruneta에서 일년에 한 번씩 열리는 장터를 섬세하게 표현한 그림이다. 그림에 나온 사람의 숫자는 무려 1200명을 훌쩍 넘을 정도다. 그림의 우측 부분을 확대해보니 무대 위에서 발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그림 9). 브뤼헤 미술관에 있는 Peter van Bredal(1629-1719)의 작품 'Market scene in an Italian landscape' 보다 훨씬 더 많은 구경꾼들을 앞에 두고 진료하고 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그림은 모두 치과의사 수호성인 아폴로니아가 주인공이다. 가스파르 드 크라이에(Caspar de Crayer, 1584-1669)의 작품 'Sainte Apolline⁸⁾과 야코프 요르단스(Jacob Jordaens, 1593-1678)의 그림 'The martyrdom of Saint Apolline(1628)'이다. 안트베르펜 출신의 요르단스의 아폴로니아 작품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피에르 포샤르 치의학 박물관에서도 소장하고 있다. 두 그림의 제목은 같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가장 눈에 띈 점은 아폴로니아 치아를 발치하고 있는 사람 손의 위치다. 벨기에 왕립미술관 그림에서는 오른손으로 발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피에르 포샤르 치의학 박물관의 작품에서는 왼손이 하고 있다.

5. 안트베르펜 왕립미술관(Royal Museums of Fine Arts, Antwerp)

Antoon ou Antonie Goubau(1616-1698): The Navona Square in Rome

Peeter Gysels(1621-1690): Flemish Fair

Charles Verlat(1824-1890): The Dentist(1879)

플랑드르(Flandre)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플란다스(Flanders)이다. 플랑드르 보다는 플란다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만화영화 ‘플란다스의 개’ 덕분이다. 이 만화영화의 주제기도 영화 못지않게 유명하다. 애니메이션 ‘플란다스의 개’는 영국 여류 작가 위다(Ouida)가 1872년 쓴 소설을 바탕으로 일본의 쿠로다 요시오가 만든 만화영화다¹⁹⁾.

간단하게 ‘플란다스의 개’의 내용을 설명하면 장래희망이 화가인 네로, 할아버지 다스, 유기견 파트리슈가 주인공이다. 플랑드르 지방 안트베르펜(antwerpen) 근교의 마을에서 2인 1견이 살면서 일어난 이야기를 만화영화로 제작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안트베르펜 성모마리아 대성당에 있는 루벤스의 그림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파트리슈를 끌어안은 채로 생을 마감한다. 이처럼 작가의 상상 속의 이야기지만 안트베르펜하면 ‘플란다스의 개’가 떠오르고, 실제로 성모마리아 대성당 앞에는 2017년에 제작된 Nello & Patrasche 조각상이 길바닥에 누워있다.

애니메이션 ‘플란다스의 개’의 고향인 안트베르펜에도 브뤼셀에서처럼 또 하나의 왕립미술관이 있다. 벨기에의 제2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작품의 수가 7,600여점으로 적지 않다. 안트베르펜이 플랑드르 화파의 중심지인 까닭에 이곳 출신의 작가 그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미술관은 현재 리모델링 중이며 2020년 개관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여행에서는 못 갔지만 다음 기회에 반드시 가야할 안트베르펜 왕립미술관에는 3점의 치과 그림이 있다.

첫 번째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Anton Goubau (1616-1698)가 17세기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나보나(Navona) 광장의 풍경을 묘사한 작품 ‘The Navona Square in Rome’이다⁸⁾. 2017년 이탈리아 여행에서 직접 나보나 광장을 갔다 와서 그런지 이 그림이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 나보나 광장은 영화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로마의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이다. 17세기 발치사가 장터가 열리는 피우미 분수 앞에서 발치를 하고 있다. 약병과 책이 놓여진 테이블 옆에서 만도린(mandolin)을 연주하는 사람이 눈에 띈다. 만도린 연주의 목적이 대략 3가지가 있는 것 같다. 첫째는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둘째는 환자의 아우성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장터에 온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로 해석된다. 이런 재미가 그림을 감상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 같다.

두 번째 그림은 안트베르펜 출신인 Peeter Gysels(1621-1690)의 작품 ‘Flemish Fair’이다⁸⁾. 17세기 플랑드르 지방의 장터 모습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다. 그림을 확대해서 보니 발치사는 끙끙대며 발치를 하고 있고, 그의 조수는 목이 터져라 명약(elixir)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아마도 그 약만 먹으면 모든 치통이 모두 사라질 거라는 광고를 하고 있는 듯하다.

세 번째 그림도 안트베르펜 출신 화가 Charles Verlat(1824-1890)의 작품이다⁸⁾. 제목은 ‘The Dentist’인데 원숭이가 발치사와 환자로 묘사되어 있다. 원숭이는 17세기 그림에서 자주 보이는 동물이다. 아마도 작가가 어디선가 실제로 본 장면을 원숭이로 의인화시켜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다. 이 시기에 그림속의 인물을 실제로 그렸다면 개인정보 노출과 초상권 침해의 위험성이 높았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Christopher Fratin의 청동상 ‘The Dentist Bear’을 들 수 있다.

6. 헨트미술관(Museum of Fine Arts, Ghent)

Theodore Rombouts(1597-1637): The Tooth Puller
Egbert van Heemskerck(1634-1704): Surgeon and
barber(1670)

벨기에의 두 번째 도시 헨트(Ghent)에 벨기에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인 Museum of Fine arts Ghent가 있다. 이 미술관은 중세부터 현대 미술까지 아우르는 600여점의 유럽 명화와 조각품을 소장하고 있다. 미술관의 크기가 아담하지만 Jheronimus Bosch(1450-1516), Peter Paul Rubens(1577-1640)와 Anthony van Dyck(1599-1641)등 거장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헨트는 브뤼셀에서 약 50 km 정도 떨어져 가까운 거리이기에 브뤼셀에 올 일이 있다면 꼭 한 번 가볼만한 도시이다.

헨트 미술관에 있는 2점의 치과 명화를 통해서 17세기에 행해졌던 치과 진료 장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첫 번째 그림은 벨기에 안트베르펜 출신 화가 Theodor Rombouts (1579-1637)의 'The tooth puller'이다(그림 10). 바로크 미술의 거장 카라바조(Caravaggio, 1571-1610)가 남긴 그림 'Tooth Puller(1609)'와 묘사된 장면이 비슷하다. 테오도르 롬바우트의 'The tooth puller'라는 동일한 제목의 작품이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도 있다. 그러나 발치사의 모자가 일부 잘린 채로 그려져 있는 차이점이 있다. 네델란드에서 가장 큰 대학인 위트레흐트 대학 박물관이 관리하는 창고형 박물관에서 롬바우트의 그림을 우연히 만날 수 있었다.

테오도르 롬바우트의 그림에는 카라바조처럼 인위적인 빛에 의한 극적인 모습이 뚜렷하게 보인다¹⁷⁾. 그런데 그림의 중심에 있는 환자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테이블에 놓인 기구들에 시선이 간다. 그림의 왼쪽에 있는 사람은 돋보기까지 사용하면서 시술 장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반면에 그림의 우

측 상단에 있는 두 사람은 치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서로의 치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림에 5개의 기구, 몇 개의 약병과 서류가 담겨 있는 것 같은 지갑 같은 것이 보인다. 약병에 'UN..G..EG' 이렇게 적혀 있다. 이것은 그 당시 dental gangrene 치료에 많이 사용되었던 'Aegyptiac'을 암시한다. 그림이 자세하게 묘사된 덕분에 몇 가지 기구는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다(spatula, hand drill, trepan, tongue holder)⁸⁾.

발치사(tooth puller)는 커다란 모자를 착용하고 있으며, 목에는 발거된 치아로 만든 목걸이를 하고 있다. 17세기 초 발치사의 복장과 모자는 나름 전문가임을 나타내는 상징물 같고, 치아 목걸이는 특히 발치 전문가임을 암시하는 듯하다. 환자는 하악 우측 구치부 치아를 치료받는 중인데, 의자에 천으로 묶여 있는 오른손은 의자를 꼭 잡고 있고, 왼손은 경직된 채로 손바닥이 짝 퍼져있다. 환자의 손동작만 보아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짐작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역사적 사실은 이 그림이 제작된 17세기 초 이후로 약 200여년 동안 어떠한 국소마취 없이 발치가 시행되었다.

두 번째 작품은 네델란드 하를렘(Haarlem) 출신인 Egbert van Heemskerck(1634-1704)가 그린 'Surgeon & barber(1670)'이다. 에그베르트 반 헤임스케르크는 풍속화로 유명하였고 풍자가 숨어있는 그림을 많이 남겼다. 17세기 여러 직업 중에서 유독 돌팔이 의사와 발치사가 그림을 통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 그림은 제목 그대로 실내 공간에서 외과의와 이발사가 근무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에는 이발사와 발치사를 포함하여 총 17명이 등장한다. 몇 사람은 시술하는 장면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창문 앞에서 있는 발치사는 환자의 뺨을 닦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발치 후의 모습으로 보인다.

7. 뤼벤 미술관(M-Museum Leuven)

Peter Bout(1658-1702) & Adriaen

Frans(1644-1711): The market in Italy

이번 여정에 뤼벤이 포함된 이유 중 하나는 매년 발표되는 세계 치과대학 순위에서 항상 10위안에 포함되는 벨기에 뤼벤 치과대학(2018년 9위)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뤼벤 치대 치과재료학 교실의 주임 교수인 Bart Van Meerbeek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벨기에에는 6개의 치과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플라망어(Flemish)로 수업을 하는 곳은 겐트와 뤼벤 치과대학 2곳이라고 하였다. 플라망어는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 지방에서 사용되는 네델란드어지만, 네델란드에서 쓰이는 네델란드어(Dutch)와 약간 차이가 있다. 벨기에보다 인구수가 약 500만이 더 많은 네델란드에는 3개의 치과대학만 있기에 두 나라의 인구 대비 치과대학 숫자를 비교하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처럼 네델란드와 벨기에에는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스토리가 많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논외로 한다.

뤼벤(Leuven)을 방문한 또 다른 이유는 뤼벤 미술관 때문이다. 이 미술관은 1823년 뤼벤 시청에서 18세기 호기심의 방으로 시작하여 시립 박물관으로 발전하였고, 현재의 미술관은 2009년 Stephane Beel의 설계로 건축되어 플랑드르 화파의 작품과 현대 미술품을 모두 아우르는 멋진 미술관으로 탄생되어 뤼벤의 관광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 미술관은 52,500여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치과 명화도 한 점이 있다. 플랑드르 화파인 Pieter Bout(1658-1702)와 Adriaen Boudewyns(1644-1711)가 협업해서 그린 'The market in Italy'가 뤼벤 미술관에 있다. 17세기 이탈리아의 어느 장터의 풍경을 리얼하게 묘사한 그림이다. Pieter Bout는 인물 묘사에, Adriaen Boudewyns는 풍경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화가로 유명하다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의 키 높이가 정도 되는 무대에

서 치과 치료중인 모습이 보인다(그림 11). 무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하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다.

8. 그로닝겐 미술관(Groeningemuseum)

Peeter van Bredael(1629-1719): Market scene in an Italian landscape

벨기에 브뤼셀(brussels)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도시인 반면에 브뤼헤(bruges)는 왠지 낯설게 들린다. 브뤼셀에서 1시간정도 떨어져 있는 '브뤼헤'의 뜻은 '다리'이다. 실제로 브뤼헤 구도심에 운하가 있어 많은 다리로 연결된 도시이다. 브뤼헤는 벨기에의 고도(古都) 또는 '천정 없는 미술관'이라는 애칭이 있다. 2000년에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이다.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브뤼헤에도 치과 명화를 딱 한 점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 있다. 그로닝겐 미술관은 중세 Eekhout 수도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져서 그런지 분위기가 다른 미술관과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플랑드르 화파의 중심지 브뤼헤에 있는 그로닝겐 미술관은 14, 15세기 플랑드르 지역 화가들의 작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벨기에 안트베르펜 출신의 화가 Peter van Bredael(1629-1719)'Market scene in an Italian landscape'은 Pieter Bout(1658-1702)와 Adriaen Boudewyns(1644-1711)의 그림 'The market in Italy'와 여러 가지 면에서 흡사하다⁸⁾. 17세기 플랑드르 화파의 작품이며, 우연의 일치로 제목에 '이탈리아 장터'가 포함되어 있다. 두 작품에서 유일한 차이점은 Peter van Bredael의 그림에서 치과 치료하는 모습이 더 작게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정말 세밀한 관찰력이 없다면 치과와의 연관성을 발견하기 힘든 작품이다. 발치사는 여러 명의 구경꾼을 앞에 두고 진료를 하고 있다. 어쩌면 이 작품을 실제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갖고 미술관



그림 10. Theodore Rombouts(1597-1637)의 The Tooth Puller



그림 11. 그림 61의 치과 치료 장면을 확대한 모습



그림 12. 호생관 최북(1712-?): 금강전경선면

을 방문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그림은 수장고에서 긴 잠을 자고 있는 중이다.

북한 North Korea

조선미술박물관(Korean Art Gallery)

단원 김홍도(1745-1806): 구룡폭, 노예흔기

호생관 최북(1712-?): 금강전경선면

소치 허련(1808-1893): 산거도

평양 시내에는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과 조선민속 박물관과 같은 세 개의 박물관이 있다. 그중에서 토선 함석태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는 조선미술박물관에 유독 관심이 간다. 조선미술박물관은 1948년 건립되었고 크기는 4층 건물이며 모두 26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2층의 제1호실에서 12호실까지는 고대에서 근대 미술품이 있고, 3층의 제13호실에서 26호실까지는 해방 후 창작된 현대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다²⁰⁾.

한국인 최초의 치과 의사 함석태는 문화재 수집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도자기를 좋아해서 자신의 호를 '토선(土禪)'이라 하였다²¹⁾. 그는 근현대 미술 애호가

및 수집가 14인에 포함되었고 일제 강점기에 개최된 고서화 전람회에 출품된 그의 소장품들의 면면을 보면 간송 전형필과 필적할 정도로 국보급들이 많았다.

겸재 정선의 금강전경액과 호계삼소, 현재 심사정의 매도와 묵연, 단원 김홍도의 화조대폭, 구룡폭과 노예흔기, 추사 김정희의 행서칠언대련, 적고당예액, 부용추수비인거액, 조선의 반고호로 불리우는 최북의 금강전경선면(그림 12), 허련의 산거도 등 함석태가 보유했던 소장품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 중에서 김홍도의 구룡폭, 노예흔기, 최북의 금강전경선면과 허련의 산거도는 현재 조선미술박물관의 소장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해방전후 혼란시기에 함석태는 일제 소개령에 따라 1945년 자신의 소장품들을 평안북도 영변으로 옮겼다. 해방 후 함석태의 자취는 어디에도 없고 다만 그의 일부 소장품들은 지금 평양 조선미술박물관에 전시중인데 차라리 그때 서울에 그대로 계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만 가득하다.

IV. 결론

‘Seeing comes before words(보는 것이 말보다 우선이다).’ 이 문구는 영국의 미술 비평가이자 화가인 존 버거(John Berger, 1926-2017)가 그의 저서 Ways of Seeing(1972)에서 그림의 위대함을 표현한 말이다. 버거는 그림을 감상할 때 하나의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그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학에서 치과와 관련된 명화는 매우 귀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다. 치과 명화는 과거의 사람들이 치과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고 어떤 사람들이 담당하였는지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사료다.

필자는 지난 수년 동안 방문한 미술관에서 여러 점의 치과명화를 직접 눈으로 감상하였다. 그 결과 필자에게는 치과의사로서의 직업적 성찰이 따라왔다. 지금 내가 진료하는 모습이 그려진다면 나의 얼굴 표정은 어떨까? 환자 그리고 보호자는 어떤 포즈를 하고 있을까? 이러한 상념이 진료실에서 치과의사로서의 몸과 마음가짐에 항상 유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모교 로비에 모사한 치과 명화 2점을 설치하였다. 작품의 완성도가 원본에는 한참 못미치는 모작이지만 그림을 보는 미래의 치과의사에게 어떤 생각을 들게 한다면 모작이든 진품이든 그림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Kweon H. The history of dentistry : USA Tour,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13;32(1):122-144.
2. William Susi : Dentistry in Stamps, ANDI Servizi ari, 2010.
3. Kweon H. The history of dentistry : USA Tour,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16;35(1):32-54.
4. Rachel Bairsto : The British Dentist, Shire Publications Ltd, 2015.
5. K. McConkey : Sir John Lavery's The Dentist, Br Dent J 2011;210:81-85.
6. Kweon H. The history of dentistry : France Tour,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15;34(1):106-135.
7. Bernard S. Moskow : The dental cartoon of Honore Daumier(1808-1879), JADA(102):82-86, 1981.
8. Pierre Baron : L'art Dentaire A Travers La Peinture, Vilo, 1986.
9. Kweon H. : GC Circle Vol 37:3-8, 2020.
10. James Wynbrandt : The excruciating history of dentistry, St. Martin's Griffin, 1998.
11. Kweon H. The history of dentistry : Italy Tour,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17;36(1):90-114.
12. Bernard S. Moskow : Caravaggio's "Toothpuller", J Oral Maxillofac Surg(46):134-137, 1988.
13. Shade GJ : Tandheekunde in de prentkunst, Uitgeverij, 2014.
14. Lee Seungku : 천년 그림속 의학 이야기, 생각정거장, 2017.
15. Dott Beniamino De vecchis : Dentisti Artisti Pazienti, Tipografia Editrice Minerva, 1929.
16. Kweon H. The history of dentistry : Netherland/Begium Tour,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18;37(1):119-148.
17. JJ Pindborg and L. Marvitz : The Dentist in Art, George Proffer LTD, 1961.
18. Kim Youngsuk : 네덜란드/벨기에 미술관 산책, 마로니에북스, 2013.
19. Chung Junmo : 영화 속 미술관, 마로니에북스, 2011.
20. Yu Hongjune :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창비, 2011.
21. Kweon H. The history of dentistry : Korea Tour,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14;33(1):34-59.